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86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0)민오름·까끄레기오름·산굼부리
조릿대 군락 오름 분화구서 확산

입력 : 2004. 03.05. 00:00:00



△조천 민오름

제주에는 민오름으로 불리는 오름이 많다. 제주시 봉개동, 오라동, 구좌읍 송당리, 남원읍 수망리에도 민오름이 있다. 민오름은 예전에 나무가 없고 풀밭으로 덮힌 민둥산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천 민오름을 보면 민둥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동·남사면에는 삼나무가 조림돼 있고 북사면에는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오름 정상에도 숲이 우거져 있다.

탐사팀은 동남사면에 조림돼 있는 삼나무 숲지대를 거슬러 정상으로 향했다. 말굽형의 굼부리는 북서쪽으로 벌어져 있다. 오름 기슭에는 조천목장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동부지역 오름군이 민오름 정상에서 한눈에 들어온다. 오름의 높이는 118m.

△까끄레기오름

오름의 높이가 49m에 불과해 넉넉잡아도 1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조천읍 교래 사거리에서 산굼부리를 지나면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이 오름을 만날 수 있다.

이 오름의 유래는 흥미롭다. 제주에서는 곡식이나 마소를 보살피러 가는 일을 '고끄레간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오름 주위가 마소들의 방목지였으므로 이와 관련해 명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1990년대 들어 이 오름 북녘 기슭에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방갈로, 승마장, 토속음식점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이 곳에 방갈로 몇채가 지어졌으나 수년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철거되기도 했다. 졸속정책의 한 단면이었다.

까끄레기 오름 정상 굼부리에는 억새가 가득하다. 그런데 굼부리 바닥 중앙부에 제주조릿대가 군락을 이룬채 확산되고 있다. 중산간 지역 굼부리 안에까지 제주조릿대가 확산된 사례는 보기 드물다. 제주조릿대는 한라산 생태계의 최대 현안이다.

△산굼부리

가을이 깊어갈 무렵, 광활한 야산초지에 넘실대는 은백색의 억새와 신혼부부의 물결이 한데 어우러지는 명소가 산굼부리다. 굼부리는 분화구를 말한다. 산과 굼부리가 이름에 함께 붙여진 오름이다. '살아있는 굼부리'라는 풀이도 있다. 굼부리 자체가 천연기념물(263호)로 지정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화구 주위의 높이가 15~25m로 낮지만 화구의 깊이는 1백m나 되는 독특한 형태의 분화구이다. 과거 지질학자들은 이 곳을 폭발공간만으론 화산체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마르형분화구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르형이 아닌 함몰분화구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탐사팀은 굼부리로 향했다. 산굼부리는 눈속에서도 매우 독특한 식물상을 보여준다. 상록과 낙엽활엽수림, 억새군락, 암벽식물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강영제 탐사위원은 "산굼부리의 다양한 식물의 모습은 평지 분화구란 특이성과 좁은 지형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즉 증발량, 일조량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식물사회를 좁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화구 바닥에서는 왕대와 이대군락이 자리잡고 있다. 그 면적이 2백평방m이상된다. 대나무군락은 이곳에 과거 집터의 흔적이 있어 사람이 거주했음을 지시해준다. 분화구의 대나무군락은 이미 탐사를 통해 성산일출봉과 성읍 남산봉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산굼부리의 대나무군락은 바닥뿐만 아니라 사면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강 위원은 "산굼부리에는 약 4백50 분류군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분포하는 장소로서 앞으로 보존과 식물관찰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식물사회를 단순하게 만드는 대나무 군락에 대한 정밀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막내둥이 같은 까끄레기 오름

까끄레기오름은 아담한 산체를 가진 오름이다. 정상까지 오르는데도 10여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 산굼부리와 동서로 이웃해 있으며, 두 오름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0여 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지도상에서 볼 때는 두 오름이 마치 형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물론 산굼부리가 형이고 까끄레기오름이 동생이다. 두 오름의 산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까끄레기오름이 산굼부리 안으로 속 빨려들어 갈 것 같은 분위기를 준다.

오름 정상에 서면 아담한 산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분화구는 거의 원형에 가까우면서도 정남방향으로 아주 작게 개구(開口)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분화구는 분화활동 후에 외륜부가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메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 쪽에서 분화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도 보통 길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이다.

분화구 안쪽과 능선부에는 모두 7기의 묘가 들어서 있다. 분화구 안은 험하지 않고 더욱이 큰 나무들이 없어서 쉽게 양지(陽地)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조상을 모시는데 주저하지 않을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분화구 안에서 한 가지 놀란 것은 제주조릿대가 한쪽 구석을 채워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조릿대가 번져 있는 면적은 대략 200~300여 평 정도이지만, 분화구 안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조릿대가 차지하는 면적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면적은 아니다.

문제는 왕왕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조릿대 확산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하는 측면에 있다. 식생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오름 분화구 안에 서식하고 있는 제주조릿대, 이대 또는 왕대의 확산문제는 오름경관이나 자생식물의 육성·보전이라는 차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정광중 탐사위원 (제주교대 교수/인문지리 분야)>

[전문가리포트]산굼부리 '함몰분화구' 새학설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산굼부리는 둘레 2km, 깊이 100m의 움푹패인 분화구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주도내에 무수히 산재해 있는 오름들과는 달리 분화구 외륜의 봉우리가 거의 발달되지 않은 특이한 화산이다.

밖에서 보이는 화산체의 규모는 작은 반면 분화구(굼부리)가 크고 깊은 특징에 따라 그 동안 산굼부리는 흔히 마르형 분화구로 해석하여 왔다. 마르형 분화구는 증기-마그마(phreatomagmatic) 또는 증기 분화(phreatic eruptions)로 만들어진다. 증기-마그마(phreatomagmatic) 또는 증기 분화(phreatic eruptions)란 상승하는 마그마가 주변의 물(지하수 또는 지표로부터 들어간 물)과 만나 상호 폭발적으로 작용하여 분화하는 화산활동이며, 이런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마르(maar)는 넓고 낮은 외륜을 가진 분화구들(응회환과 응회구를 포함)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한편, 산굼부리가 지구 중력에 포획된 외계 운석의 충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제주도를 세밀하게 연구하는 지질학자들 사이에는 산굼부리 형성을 함몰분화구(pit crater)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함몰분화구란 지표면 아래 일정장소에 머물던 마그마가 화산활동에 의해 지표면으로 분화하여 많은 양이 빠져나가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지하의 다른 장소로 빠져나감에 따라 지하 공동이 형성되고 그 상부의 지반이 함몰됨에 따라 형성된다. 산굼부리 분화구 내측 절벽에서는 마르형 분화구에서 흔히 형성되는 특이한 화산성 퇴적층을 관찰할 수 없고 대부분 현무암층과 크링커 및 소량의 송이(스코리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산굼부리가 함몰분화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제주본부·이학박사/지질분야)>

[사진설명]산굼부리 전경. 분화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식물상을 보여준다. 분화구바닥에 대나무군락이 확산되고 있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알림]3월 6일(토요일)은 따라비오름·대록산·소록산 등을 탐사합니다. 탐사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본사 휴게실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